



인종평등선교주일

알고
계셨습니까?



연합감리교회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지킵니다. 교회 공동체들은 지역 사회 개발자 프로그램이나, 연합감리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등의 지역사회 및 청소년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 주간의 주일에 지켜지며, 특별 선교 헌금은 원래 자주적 결정 프로젝트(Self-Determination Projects), 흑인 지역사회 개발자 및 경찰-지역사회 관계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1972년에 시작되었고, 1988년에는 사회 정의 사역을 지원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후원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 헌금이 후원하는 특정 사역에는 지역 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기금은 총회 세계선교부와 총회 사회부에서 관장합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의 57%가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er Program)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이 125,000명 이상 자원봉사자들의 훈련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이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청소년 범죄자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이 1976년부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헌금하기 | 더 알아보기
인종평등선교주일 기금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총회 세계선교부 | 총회 사회부